# 2008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 성명 | | 수험번호 | | | | | | 1 | | | | |
|---|---|---|---|---|---|---|---|---|---|---|---|---|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1점]

① 성공하려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②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③ 인생에서 좋은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
④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실력자 밑에서 일해야 한다.
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2.* (물음) '연출자'가 이 연극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 수 있는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존 연극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공연**
 –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약
② **관객을 허구의 세계로 이끄는 공연**
 – 무대와 객석을 통합한 새로운 공간
③ **관객의 참여로 만들어 가는 공연**
 – 연극과 삶이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공연
④ **기존 형식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공연**
 – 배우들이 관객을 이끄는 연극
⑤ **배우와 관객을 매개로 한 공연**
 – 정해진 줄거리에서 찾는 삶의 의미

*3.* (물음)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들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포식자를 만나면 몸을 부풀려 상대방을 위협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복어
② 말미잘 속에서 숨어 살면서 말미잘을 나비고기로부터 보호해 주는 흰동가리
③ 개체 수가 늘어나 집단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때 스스로 출산을 억제하는 쥐
④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의 색소를 변화시켜 주변색과 비슷하게 만드는 문어
⑤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파수꾼, 보모, 유모 등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미어캣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PPL'에 대해 남자가 말한 내용이 <u>아닌</u> 것은?

① 영화 제작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② 영화의 특성에 어울리게 사용해야 한다.
③ 과도한 PPL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④ 광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경제적인 방법이다.
⑤ 상품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인지시키는 방법이다.

*5.*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자신의 체험을 들어 대담자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
② 재치 있는 말로 대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
③ 대담자의 말을 요약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예상되는 반론을 소개하며 심화된 논의를 유도하고 있다.
⑤ 대담자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독서'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를 선별하는 일입니다. 속이 무른 배추를 쓰거나 질 낮은 소금을 쓰면 김치의 맛이 제대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장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험이 많고 조예가 깊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김치만 담그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담가 두는 것이 긴 겨울 동안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지혜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종류의 김치를 얼마나 담글 것인지, 김장을 언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① 좋은 책을 골라서 읽기 위해 노력한다.
② 독서한 결과를 정리해 두는 습관을 기른다.
③ 적절한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이를 실천한다.
④ 독서를 많이 한 선배나 선생님께 조언을 받는다.
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다.

7. 다양한 소재로 글쓰기를 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보 기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밝혀 경각심을 일깨울 것

① 칼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이기가 될 수도 있고 흉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② 소문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기도 한다. 그런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 나가며 구르는 눈 덩이처럼 거짓과 오해를 스스로 부풀린다.
③ 숫자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은 삭막해진다. 나비의 날갯짓에서도 아무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대신 그 나비가 몇 마리인지만 중요해진다.
④ 옹기는 투박해서 좋다. 번지르르하게 윤이 나는 얼굴을 내민 얄팍한 도자기들과 달리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세월을 견디어 온 대들보 같아서 좋다.
⑤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돈을 증오한다는 사람조차도 이미 돈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8. <보기>의 문제 상황을 참고하여 (가)와 (나)의 두 방향에 따라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여 메모해 보았다.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국제결혼, 이주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가) 정부를 예상 독자로 할 경우
▶ 교육 소외 문제 해결에 초점
- 현재의 교육 제도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 지적 ····· ①
- 이주 노동자 자녀의 취학률, 학교 부적응 사례 등의 자료 활용 ····· ②
- 교육비 지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 편성 등의 대책의 필요성 강조

(나) 일반 국민을 예상 독자로 할 경우
▶ 문화적 편견 해소에 초점
- 이주 노동자 등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 지적 ····· ③
- 이주 노동자나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이해도를 보여주는 자료 활용 ····· ④
- 이주 노동자 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의 필요성 강조 ····· ⑤

9. <보기>의 개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서론 :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쓰레기가 늘고 있다.
본론
1. 포장재 쓰레기가 늘고 있는 원인
(1) 기업들이 과도한 포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2) 소비자들이 호화로운 포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포장재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
(1) 기업은 과도한 포장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2) [ ㉠ ]
결론 : 상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①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
② 실속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한다.
③ 상품 판매를 위한 지나친 경쟁이 자제되어야 한다.
④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한다.
⑤ 환경 친화적인 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10.* <보기>를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 시설 중의 하나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피해가 커진다. ㉠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소화기의 안전핀을 ㉡ 뽑아야 한다. 그 후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지고 불이 난 곳을 향해 호스(고무관)를 빼 들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쥔다. 그리고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약제가 뿌려지도록 한다. ㉢ 소화기 사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 예방이 우선이다.

소화기는 눈에 잘 ㉣ 띄는 곳에 설치해 두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소화기 사용 방법을 ㉤ 개발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에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졌으므로 '초기에' 앞에 '소화기는'을 넣어야겠어.
② ㉡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고려해서 '뽑는다'로 고쳐야겠어.
③ ㉢은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삭제해야겠어.
④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띄는'으로 고쳐야겠어.
⑤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익혀서'로 바꿔야겠어.

*11.*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접미사 '-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예
꾀보/느림보/털보/먹보/울보/뚱뚱보

▸ 접미사 '-쟁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예
멋쟁이/고집쟁이/욕심쟁이/심술쟁이/말썽쟁이/변덕쟁이

▸ 접미사 '-꾸러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예
욕심꾸러기/장난꾸러기/심술꾸러기/말썽꾸러기/변덕꾸러기

① <보기>의 접미사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덧붙여 준다.
② '-쟁이'와 '-꾸러기'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보'는 '-쟁이'나 '-꾸러기'와 달리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④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할 때 쓰인다.
⑤ <보기>의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인다.

*12.* <보기>는 받침이 있는 말의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제9항**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① 밭을[바츨] 갈고
② 빚이[비시] 많아서
③ 솥뚜껑[손뚜껑] 열고
④ 무릎을[무르블] 꿇고
⑤ 부엌에서[부어게서] 설거지를 하고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 서화(書畵)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상한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상 앞쪽 모서리보다 뒤쪽 모서리를 더 크게 그린다든지, 뒤로 갈수록 건물의 각도가 넓어지는 등 ㉠ 역원근법적인 방법으로 그렸다. 서양화의 이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그림이다. 이외에도 ㉡ 한 화면에 두세 개의 시점이 존재한다든지, 마치 영화에서 카메라가 사방을 훑고 지나가듯 ㉢ 파노라마식으로 그려진 경우도 있다. 파노라마식 그림은 화면이 긴 병풍 그림이나 5~10미터씩이나 되는 두루마리 그림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한 번도 하늘에서 땅 위를 내려다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조감도 형식으로 내려다본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린다든지, ㉤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를 마치 망원경으로 당겨서 본 것처럼 주변의 물체에 비해 자세하게 확대해서 그리는 일도 있다.

서양화에 길들여진 눈으로 봐서 가장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은 명암이나 음영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물체의 입체감을 나타내는 데에 효과적인 명암이 초상화나 동물 그림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또 서양의 인상주의 이후 회화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요소로 떠오른 그림자의 표현이, 동양의 옛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서양의 풍경화에서는 필수이다시피 한 빛의 표현과 건물의 명암과 나무들의 그림자가, 동양의 산수화에서는 표현된 적이 거의 없다.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기보다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표현 기법에서뿐 아니라 소재의 선택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원앙은 추운 지방에서 사는 새로서 연꽃이 한창 필 무렵에는 북쪽으로 날아가 버리나, 동양의 옛 그림 속에서는 연꽃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소재의 배합은 많은 그림에서 보인다.

그렇다면 동양의 옛 그림에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동양의 그림과 서양의 그림의 바탕에 깔려 있는 사고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서양의 그림이 형체, 명암, 빛깔 등 보이는 바를 화면에 그대로 묘사하는 형식이라면, ㉮ 동양의 그림은 화가가 생각한 것이나 아는 것, 즉 관념을 그리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산수화를 그리는 경우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그 모습을 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그린다. 그러니 풍경화처럼 경치를 그리지 않고,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자연의 오묘한 조화나 이상향을 그리게 된다. 간혹 직접 현장에 가서 경치를 보고 그린다 하더라도, 사생(寫生)이 아니라 경치에서 느껴지는 기운이나 운치를 그린다.

어떻게 보면 동양의 옛 그림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그 동안 서양의 그림에 익숙하다 ⓐ 보니 동양의 그림을 서양화를 ⓑ 보는 눈으로 감상하기 때문이다. 서양의 과학적 표현만이 우수한 회화라고 ⓒ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서양 그림도 현대 회화에서는 대상을 재현한 그림보다는 뜻을 가진 그림이 오히려 더 성행한다. 동양의 그림은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이다. ⓓ 본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그렸다. 그래서 묘사적이 아니라 개념적이다. 동양의 그림은 동양적 시각으로 ⓔ 보아야 한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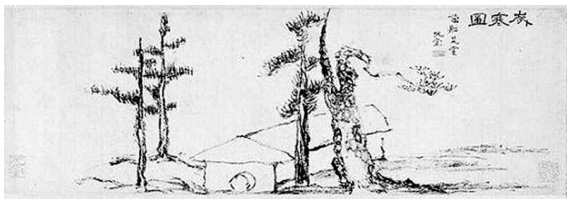
① 동양화의 파노라마식 전개는 주로 두루마리 그림에 나타난다.
② 동양의 산수화는 서양의 풍경화와 같이 빛의 표현을 중시하였다.
③ 동양의 동물 그림에서는 명암과 그림자의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동양화에서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소재가 한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⑤ 서양의 현대 회화에서도 대상을 재현한 그림보다는 뜻을 가진 그림이 성행한다.

*14.* ㉮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문인화에서 문인들은 여유, 운치, 낭만, 고고함을 표현하기 위해 여백의 표현을 많이 하였다.
② 문인들이 그린 초상화는 인물의 사실성보다 인품이나 덕망, 학식 등을 표현하는 데 주력하였다.
③ 문인 묵객들은 각 식물이 갖는 속성을 선비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과 연결하여 사군자를 즐겨 그렸다.
④ 진경산수화는 실제의 경치를 보고 그렸지만, 자연 속의 오묘한 조화 및 신비로움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⑤ 풍속화는 빨래터의 모습, 대장간의 풍경, 씨름판의 풍경 등 서민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15.* ㉠ ~ ㉤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 보 기 >



삼각형의 지붕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 아래의 둥근 창문은 왼쪽에서 본 모습을, 긴 직사각형의 지붕은 오른쪽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한편 지붕의 폭은 뒤로 갈수록 좁아지지만 소나무에 가려진 벽은 오히려 뒤로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6.* ⓐ ~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뒷말의 이유나 원인이 됨.
② ⓑ :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
③ ⓒ : 대상을 평가하다.
④ ⓓ :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⑤ ⓔ :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기에 이르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일상생활, 특히 학문적 활동에서 추구하고 있는 진리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춘 지식을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의 세 가지 학설이 있다.

'대응설'에서는 어떤 명제나 생각이 사실이나 대상에 들어맞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믿는다. 가령 앞에 있는 책상이 모나고 노란 색깔이라고 할 때 우리의 시각으로 파악된 관념은 앞에 있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성질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늘 거울과 같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감각이 언제나 거울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각 기관의 생리적 상태, 조명, 대상의 위치 등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감각 기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은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지는 못한다.

'정합설'은 관념과 대상의 일치가 불가능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이 옳은지 그른지 실재에 비추어 보아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지식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모순됨이 없이 들어맞는지 여부에 의해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바로 정합설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명제이지만,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의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감각적 판단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칭 판단*이나 고차적인 과학적 판단들의 진위를 가려내는 데 적합한 이론이 정합설이다.

하지만 정합설에도 역시 한계가 있다. 어떤 명제가 기존의 지식 체계와 정합할* 때 '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지식 체계의 진리성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또 그 이전의 지식 체계와 정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는 더 이상 소급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결국 기존의 지식 체계와 비교할 수 없게 된다.

실용주의자들은 대응설이나 정합설과는 아주 다른 관점에서 진리를 고찰한다. 그들은 지식을 그 자체로 다루지 않고 생활상의 수단으로 본다. 그래서 지식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거나 실제로 유용할 때 '참'이라고 한다. 관념과 생각 그 자체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행동을 통해 생활에 적용되어 유용하면 비로소 진리가 되고 유용하지 못하면 거짓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행동을 통한 실제적인 결과를 기다려야 비로소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실행해 볼 수는 없다. 또한 '만족스럽다'든가 '실제로 유용하다'든가 하는 개념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논리적 기준으로는 불명확하다. 바로 이 점에서 실용설이 지니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 전칭 판단 : 대상의 모든 범위에 걸쳐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판단
* 정합할 : 모순이 없이 꼭 들어맞을

*17.* 위 글이 어떤 과제물의 내용이라고 할 때, 주어진 과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리 추구의 목적을 구체화하여 설명하라.
② 학문의 성립과 진리 사이의 관계를 밝히라.
③ 진리 여부의 판정이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하라.
④ 학문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정리하라.
⑤ 진리의 판단과 관련된 학설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라.

*1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대응설에서는 사실이나 대상과의 일치 여부로 진리를 판단한다.
② 대응설은 인간의 감각이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③ 정합설에서는 경험을 통한 검증 가능성을 진리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④ 정합설은 전칭 판단이나 과학적 판단의 진위를 가리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⑤ 실용설에서는 실제 생활에서의 유용성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19.* 위 글을 참조할 때, <보기>의 상황에 대해 바르게 평가한 것은?

< 보 기 >

동일한 문제 상황에서 한 사람은 A라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한 사람은 A와는 상반되는 B라는 신념에 따라 행동했는데 둘 다 성공하는 경우, 한 사람에게는 A가 진리이고 B는 진리가 아니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B가 진리이고 A는 진리가 아닌 결과가 나오게 된다.

① 실용설이 지닌 한계를 보여 준다.
② 대응설의 높은 효용성을 보여 준다.
③ 대응설과 실용설의 통합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④ 정합설은 반드시 대응설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⑤ 정합설에 따른 진리 판단은 전혀 실용적이지 못함을 보여 준다.

*20.* 밑줄 친 '가리다'의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내 앞도 못 가리는 처지라 결혼은 꿈도 못 꾼다네.
② 키가 큰 사람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무척 답답했어요.
③ 낯을 심하게 가리는 아이라서 남을 보면 울기부터 해요.
④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튼튼해질 수 있단다.
⑤ 인재를 뽑을 때는 옥석을 가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봄 한 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나)

그걸 내 마음이라 부르면 안 되나.
㉢ 토란잎이 간지럽다고 흔들어 대면
궁글궁글 투명한 리듬을 빚어 내는 물방울의 둥근 표정.
토란잎이 잠자면 그 배꼽 위에
하늘 빛깔로 함께 자고선
토란잎이 물방울을 털어 내기도 전에 ┐
먼저 알고 흔적 없어지는 그 자취를 ㉮
그 마음을 사랑이라 부르면 안 되나. ┘

－ 복효근,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같이는」 －

(다)

㉣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 잡사와 두어리마나는
선하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설온 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2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 있다.
② (가)와 (나)는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③ (가)와 (다)에서는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④ (가)와 (다)는 부정적 현실에서 오는 절망감을 노래하고 있다.
⑤ (나)와 (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2. (나), (다)에서 <보기>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 편의 시는 잘 다듬어진 형태 속에서 음악적 자질이 최대한 드러날 때, 그 음악적 아름다움이 실현된다. 행과 연의 규칙적 구성, 특정한 시어나 구절의 반복, 특정한 소리의 배치 등은 모두 이를 위한 것이다.

① (나)에서는 '토란잎이'로 시작되는 시구를 2행, 4행, 6행에 반복적으로 배치하였다.
② (나)는 첫 행과 끝 행을 유사한 구조를 가진 행으로 구성하였다.
③ (다)의 1연, 2연, 4연에서 '나는'을 반복하였다.
④ (다)는 모든 행의 끝을 의문형으로 마무리하였다.
⑤ (다)는 각 연의 행의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23. ㉮에 담겨 있는 의미에 공감한 독자가 그 내용을 (가), (다)의 시구를 활용하여 표현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②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을 위해 우리는 가야 한다.
③ 이 무성한 녹음은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로 향할 것이라 믿는다.
④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이대로 가시렵니까.
⑤ 설온 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대로 곧 돌아오십시오.

24. 지금은 가야할 때.를 중심으로 (가)의 의미를 해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의견은? [3점]

① 2연의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등으로 보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거기에서 오는 아픔을 노래한 것으로 보여.
② 3연의 '분분한 낙화' 등으로 보아 꽃이 져야만 열매를 맺는 자연의 섭리와 그것에 순응하는 태도로 읽을 수 있어.
③ 4연의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로 보아 가난에서 오는 절망을 극복한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
④ 4연의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등으로 보아 인생의 청춘기와 성년기의 경계 지점을 통과하는 사람의 노래로 볼 수 있어.
⑤ 6연의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으로 보아 미성숙의 상태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

25. 작가가 (다)를 쓰고 시간이 흐른 후에 <보기>의 작품을 썼다고 가정할 때,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화우(梨花雨)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秋風)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라

① (다)에 나타난 이별 상황은 <보기>의 초장에 나타나고 있다.
② (다)에 나타난 임에 대한 사랑은 <보기>에서도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초장과 중장을 통해 (다)의 상황 이후에 시간이 흘렀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다)에 나타난 염원과는 달리 <보기>에서 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와 <보기> 모두 청자로 설정된 임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노래하고 있다.

26. ㉠~㉤에 대한 이해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격정을 인내'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봄 한 철'을 한 행으로 독립시킨 것 같습니다.
② ㉡ : 떨어지는 '꽃잎'과 헤어지며 흔드는 '손길'의 두 영상이 한 데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 : '물방울'의 맑고 투명한 형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④ ㉣ : 반복되고 있는 '가시리잇고'는 이별에서 오는 충격의 깊이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⑤ ㉤ :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을 반어적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외국어'나 '외래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국어사전을 보면 '외국어'는 '모국어'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비롯되긴 했으나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이라는 정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어화'한 말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국어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구체적 내용은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이라는 두 기준을 통해 알 수 있다.

쓰임의 조건은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단어가 특정한 담화에 한두 번 사용되고 말거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동화의 조건은 해당 단어가 우리말의 특징을 지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화는 대개 음운, 문법, 의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음운상의 동화는 원래의 발음이 우리말 소리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영어의 [f]나 [r] 소리가 우리말에서는 [ㅍ], [ㄹ] 소리로 바뀌는 것을 들 수 있다. 문법 면에서의 동화는 원어에서 가졌던 문법적 특징이 없어지고 우리말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영어에서 단수와 복수를 구별해서 쓰는 'shirt'가 국어에서는 항상 복수 형태인 '셔츠(shirts)'의 형식으로만 사용된다든가, 외국어 단어가 우리말에서 형용사나 동사 구실을 할 때에는 항상 '－하다' 형태로만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의미 면에서의 동화는 우리말 속에 들어와 그 고유한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국어에서 '미팅(meeting)'이 남녀 학생들이 사교를 목적으로 갖는 모임을 뜻하거나 '마담(madame)'이 술집이나 다방의 여주인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화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외국어 단어가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해당 언어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우리말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전에서도 외국어로 보는 단어는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는다. 반면 외래어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면서 또 우리말에 동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외래어가 오랜 시간 널리 쓰여 일반인들에게 외국에서 온 말이라는 의식 없이 고유어와 똑같이 취급되게 되면 그 말은 따로 구분하여 귀화어라 하기도 한다. 귀화어는 사전에서도 어원만 별도로 표시할 뿐 외래어의 경우처럼 원래의 외국어 단어를 병기하지 않는다.

외래어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하는 입장에서는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을 모두 갖춘 부류만을 외래어로 인정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외래어로 인식하는 어휘들은 상당 부분 국어 속에 널리 쓰이기는 하나 동화 과정을 완전히 거치지 못한 것들도 포함한다. 해당 고유어나 한자어가 있는데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순화 대상이 되는 어휘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어휘들은 동화 과정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할 수만은 없다. 사전에서도 이러한 어휘들은 순화할 말과 함께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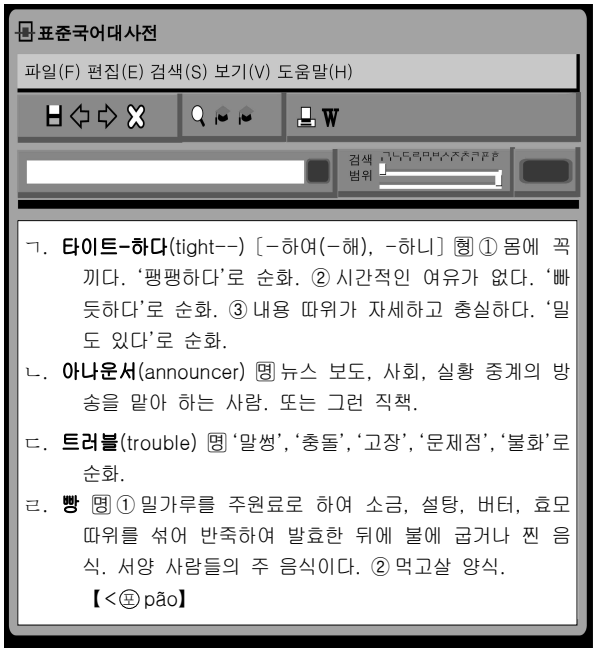
27. 위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례를 제시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물음을 통해 중심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③ 항목을 나누어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현상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⑤ 용어에 대한 정의를 통해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28. 어떤 단어가 외래어인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 위 글로 보아 판단 과정에서 사용해야 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가?
② 우리말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③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쓰이는가?
④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가?
⑤ 단어가 유래한 나라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가?

29. <보기>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ㄱ은 외래어 중 우리말의 문법적 특징을 지니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② ㄴ은 우리말에 동화되어 널리 쓰이는, 우리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외래어이다.
③ ㄷ의 '트러블'에서 '러'는 원래의 소리와 우리말 소리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ㄹ은 일반인들에게 외국에서 온 말이라는 의식 없이 사용되는 어휘이다.
⑤ ㄱ과 ㄷ은 널리 쓰이기는 하나 동화 과정을 완전히 거치지 못한 어휘로 볼 수 있다.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80년대에 생물물리학 분야에서 하나의 ㉠ 전기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생체에서 ㉡ 방사되는 미약한 빛, 즉 광자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였다. 생체에서 방사되는 광자를 '생체광자'라고 하는데, 이는 화학적 반응 현상인 생체발광에 의해 생겨나는 빛과는 다른 것으로, 빛의 세기는 매우 미약하지만 세포들 간의 통신도 이 빛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빛이 통신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 통로는 과연 무엇일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포 내의 단백질군(群)과 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단백질 도관(導管)'이 세포핵과 세포벽을 연결하면서 동시에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성한다.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물은 광섬유처럼 빛이 통과하기에 적절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도관을 통해 생체 정보가 실려 있는 파동, 즉 생체광자가 통과하는데, 그 주파수는 적외선 영역에 근접한다.

그렇다면 생체는 어떻게 이 미약한 신호를 주위의 잡음 신호와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을까? 그 실마리는 북미산 나방에 대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나방의 암컷은 페로몬을 분비하여 수나방을 ㉢ 유인하는데, 이 페로몬의 농도는 수 km에 분자 한두 개일 정도로 매우 낮다. ㉮ 이렇게 낮은 농도로는 방향을 감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 수나방은 어떻게 암나방이 있는 곳을 알아내는 것일까? 캘러한의 연구에 의하면, 수나방은 냄새를 맡고 암나방에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페로몬에서 방사되는 특유의 미약한 전자기파를 감지하고서 암나방에게 날아가는 것임이 밝혀졌다. ㉯ 캘러한은 페로몬을 병 속에 넣고 밀봉한 채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쪼이면 수나방이 이 병을 향해 날아오다가도, 빛을 쪼이는 것을 중단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그는 빛의 조사(照射)에 의해 페로몬으로부터 모종의 신호가 방사되고, 수나방은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그는 수나방의 더듬이가 안테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수나방의 비행 방식이 비행기가 유도전파 신호를 따라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 그리고 수나방의 더듬이가 적외선을 수신하기에 알맞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즉, 수나방의 안테나가 특정 주파수의 전자파에 대해 공진*을 일으키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잡음 신호가 아무리 많아도 특정 주파수의 미약한 전자파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프는 생체광자의 발생지로 DNA를 들고 있다. 그는 DNA에서 방사되는 광자에 의해 세포 분열을 개시하라는 정보도 전달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DNA에 광자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캘러한과 포프의 연구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생명 현상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 세계의 모든 생물체가 전자파를 이용하여 교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전자파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자파 잡음에 의해 ㉣ 교란된다면 그 영향은 치명적일 것으로 ㉤ 추정된다.

* 공진 : 어떤 물체의 진동 에너지를 다른 물체가 흡수하여 진동하는 것. 원래 진동 에너지의 진동수와 진동 에너지를 받는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가까울수록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생체광자는 세포 사이의 통신에 이용된다.
② 생체광자는 생체에서 방사되는 미약한 빛이다.
③ 포프는 생체광자의 발생지로 DNA를 들고 있다.
④ '물－단백질 도관'은 세포핵과 세포벽을 연결한다.
⑤ 생체광자는 생체발광에 의해 생기는 빛의 일종이다.

31. ㉮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① 수나방의 후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암나방이 분비하는 페로몬의 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③ 수나방은 다른 빛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적외선에는 반응하기 때문이다.
④ 생체광자는 주변의 잡음 신호와 공진하면서 전파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⑤ 수나방의 더듬이는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에 공진을 일으키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32. 결론 도출 과정이 ㉯와 유사한 것은? [3점]

①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도난 사고가 빈번했었는데 CCTV 설치 이후로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로 보건대 CCTV는 도난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② 독서하는 태도나 습관이 안 좋으면 눈이 나빠질 확률이 높다고 한다. 수현이는 독서할 때의 태도나 습관이 좋지 않은 편이니 앞으로 눈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③ 만약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가 손상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삼촌은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우리 삼촌의 폐는 손상되지 않았을 것이다.
④ 사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증명하지 못한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혼이 불멸한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⑤ 경민이의 지갑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다섯 개 있다. 그러므로 경민이는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전 여섯 개를 꺼내지는 못할 것이다.

33.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전기 : 전환점이 되는 기회나 시기
② ㉡ 방사 :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
③ ㉢ 유인 : 주의나 흥미를 일으켜 꾀어냄
④ ㉣ 교란 :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
⑤ ㉤ 추정 : 추측하여 판정함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겨우내 굳어 있던 땅은 괭이날 들어가기가 썩 힘이 들었고 게다가 돌덩이처럼 틀어박힌 연탄재 부스러기들을 일일이 골라내다보면 한 두덕을 갈아엎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용문이가 지난달 내내 연탄재들을 거두어내고 겨우 맨땅을 내놓았다고 한 꼴이 요 모양이었다. 서울것들이란. 강노인은 끙끙거리다 토막난 욕설을 내뱉어놓고는 윗저고리에서 한산도갑을 꺼낸다. 바람이 워낙 심해서 불 붙이는 일은 아무래도 저쪽 연립주택 앞에 심어놓은 사철나무를 바람벽으로 삼아야 가능할 것 같았다. 강노인이 괭이를 내던지고 밭 끄트머리로 걸어가는 사이 언제 나왔는지 부동산의 박씨가 알은체를 하였다. 자그마한 체구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머리는 기름 발라 착 달라붙게 빗어넘긴 박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강노인으로서는 괴롭기 짝이 없었다.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땅을 팔아보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회유를 거듭하더니 지난 겨울부터는 임자가 나섰다고 ㉠숫제 집까지 찾아와서 온갖 감언이설을 다 늘어놓는 박씨였다. 그것도 강노인의 나머지 땅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길 이쪽저쪽으로 쌍둥이 빌딩을 지어 부천의 명물로 만들 것이고, 거기에 초호화판 위락 시설이 들어서서 동네가 ㉡삽시간에 환해질 것이라고 했다. 일층에는 상가, 이층은 사우나, 삼층은 헬스클럽, 사오층은 사무실로 임대하는 식의 건물 용도부터가 강노인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어차피 팔지 않을 땅이므로 어느 작자가 어떤 김치 국물을 마시든 크게 나무랄 일은 못 되었다.

"영감님, 유사장이 저 심곡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나 봅디다.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박씨가 ㉢짐짓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는데 뒤따라 나온 동업자 고홍댁이 뒷말을 거든다.

"참말로 이 양반이 무진 애를 썼구만요. 우리사 셋방이나 얻어주고 소개료 받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라우. 그람시도 그리 애를 쓴 것이야 다 한동네 사는 정리로다가 그런 것이지요."

강노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고 이번엔 박씨가 나섰다.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여름마다 똥냄새 풍겨주는 밭으로 두고 있느니 평당 백만 원 이상으로 팔아넘기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이제는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 모르십니까. 팔팔 올림픽 전에 북쪽 놈들이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싸니 이삼천짜리 집들도 매기가 뚝 끊겼다 이 말입니다."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 나섰을 때 후딱 팔아치우시오. 영감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인자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는디 왜 못 알아들으실까잉. 경국이 할머니도 팔아치우자고 저 야단인디……."

고홍댁은 이제 강노인 마누라까지 쳐들고 나선다. 강노인은 피우던 담배를 비벼 꺼버리고, 꽁초는 주머니에 잘 간수한 뒤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버린다. 그 등에 대고 박씨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던졌다.

"아직도 유사장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께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보기로 하고, 일단 결정해뿌리시요!"

땅값 따위에는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누차 했건만 박씨의 ㉤말뽄새는 언제나 저 모양이다. 서울것들이란. 박씨 내외가 복덕방 안으로 들어가버린 뒤에야 그는 한마디 내뱉는다. 저들 내외가 원래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강노인에게 있어 원미동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두 서울 끄나풀들이었다.

– 양귀자, 「마지막 땅」 –

34. <보기>와 관련지어 위 글을 감상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통적으로 '땅'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이었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는 '땅'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물질적, 정신적 삶을 영위해 왔다. 그것은 생명과 삶의 원천이고, 화합과 공존이라는 삶의 가치를 학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대 산업화 이후 '땅'은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 도시적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땅에 근원을 둔 정신적 가치는 무너지게 되었다.

① '강노인'은 '똥냄새 풍겨주는 밭'에 근원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② '강노인'이 말하는 '서울것들'은 '땅'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③ '박씨'가 말하는 '동네의 발전'은 '땅'에 기반을 둔 지역 공동체가 도시적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원미동 사람들'은 전통적 '땅'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와 근대적 '땅'에 근거한 도시적 삶의 가치의 조화를 소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작품의 제목인 '마지막 땅'은 근대 산업화로 인해 '땅'에 기반을 둔 지역 공동체와 그 가치가 위기에 처한 시대적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빠른 장면 전환으로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③ 특정 인물의 입장과 시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④ 배경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36. '강노인'을 설득하는 '박씨'와 '고홍댁'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사장'과 자신들의 노력을 내세운다.
② '강노인'이 그 동안 잘한 점을 추켜세운다.
③ 어느 정도는 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거론한다.
④ 땅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⑤ '강노인'의 아내도 자신들과 생각이 같음을 든다.

37. 문맥을 고려하여 ㉠~㉤을 바꿔 쓴 말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 숫제 - 숱하게
② ㉡ 삽시간에 - 순식간에
③ ㉢ 짐짓 - 진심으로
④ ㉣ 가타부타 - 흐지부지
⑤ ㉤ 말뽄새 - 말장난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밤이 이윽히 깊어감에 따라 뭇 손님들은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벽에 구멍을 뚫고 방안을 엿보니, 진사도 제 마음을 알고 구석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제가 봉한 편지를 구멍으로 던지자, 진사는 편지를 주워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사는 제 편지를 뜯어보고는 슬픈 마음을 견디기 어려워 차마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하였으며, 사념(思念)의 정이 예전보다 두 배나 더해서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울 듯했습니다. 즉시 답장을 부치고자 했으나 믿고 보낼만한 방법이 없는 터라, 홀로 근심하고 탄식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진사는 동문 밖에 사는 한 무녀(巫女)가 신통하기로 이름이 나 있으며, 수성궁을 드나드는데 신임이 매우 두텁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략>

저는 낭군의 편지를 다 읽고 난 뒤에 소리가 끊기고 기가 막혀서, 입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여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몸을 병풍 뒤에 숨기고 오로지 남이 알까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단 한 순간도 낭군을 잊지 못하여 바보나 미치광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이 말과 얼굴에 나타나니, 대군이 의심하고 남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실로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란 역시 원한이 맺힌 여자인지라,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시는 성정(性情)에서 나오는 것이니 속일 수가 없구나."

하루는 대군이 비취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 열 사람이 한곳에 같이 있어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니, 마땅히 다섯 사람을 나누어 서궁(西宮)에 거처케 하라."

이에 저와 자란·은섬·옥녀·비취가 그날 곧바로 서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서궁에 이르러서 옥녀가 말했습니다.

"그윽한 꽃과 고운 풀, 흐르는 물과 향기로운 숲이 바로 산속에 있는 집이나 들판의 농막과 흡사하니, 진실로 독서당(讀書堂)이라 할 만하구나."

이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道)를 닦는 사람도 아니고 또 비구니도 아닌데 이처럼 깊은 궁중에 갇혀 있으니, 이곳은 참으로 장신궁* 이라 할 만하다."

제 말을 듣고 모두들 탄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편지를 한 통 써서 제 마음을 진사에게 전하기 위해 무녀를 지성으로 섬기면서 제 편지를 전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무녀는 끝내 오지 않았는데, 이는 진사가 자기에게 마음이 없는 것에 유감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란이 저에게 몰래 말했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매년 중추(仲秋)에 탕춘대* 아래 물가에서 완사*를 하고 뒤이어 술자리를 마련한 다음 끝내곤 한다. 금년에는 이 자리를 소격서동*에서 베풀고, 오가는 사이에 그 무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일 것이다."

저는 그럴 듯하게 생각하고 중추가 되기를 고대하였는데, 하루가 삼 년 같았습니다. 비취가 어디서 그 말을 엿듣고는 짐짓 모른 체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 "운영, 네가 처음 올 때에는 안색이 이화(梨花) 같고, 연지분을 바르지 않아도 타고난 자태가 어여쁘고 고왔다. 그래서 궁중 사람들이 너를 괵국부인*으로 불렀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안색이 옛날보다 좋지 않고 점점 처음보다 못해 가니, 대체 무슨 까닭이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타고난 체질이 허약해서 매번 무더운 여름철만 되면 으레 더위먹는 병이 드나, 오동잎이 떨어지고 비단 휘장에 서늘한 바람이 일게 되면 점차 저절로 낫곤 한다."

비취가 시 한 수를 지어 희롱하며 저에게 주었는데, 모두 조롱에 찬 어투였으나 뜻과 생각이 절묘하였습니다. 저는 그 재주를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그녀가 조롱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월은 천연히 흘러 몇 개월이 지나고, 마침내 맑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녁엔 차가운 바람이 불고 고운 국화는 누런 꽃을 피웠으며, 풀벌레는 소리를 거두고 흰 달은 밝은 빛을 흘리었습니다. ㉠ 저는 속으로 가을이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섬이 말했습니다.

"편지를 전하기 좋은 시절이 멀지 않았으니,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 어찌 천상과 다르리오?"

이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서궁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실대로 말한 다음 일렀습니다.

"원컨대, 남궁(南宮)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길 바란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 장신궁 : 궁전의 이름. 장락궁 안의 깊숙한 곳에 있으며, 한나라 때 태후가 거처하던 곳
* 탕춘대 : 서울 세검정에 있는 누대
* 완사 : 빨래하는 일
* 소격서동 : 지금의 삼청동, 사당인 소격서가 있었음
* 괵국부인 : 양귀비의 언니로 당나라 현종의 총비(寵妃)가 됨

38.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① 무녀는 진사와 운영을 사심 없이 대하고 있다.
② 자란은 운영에게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제시하였다.
③ 옥녀는 운영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였다.
④ 대군은 말과 얼굴에 나타난 운영의 변화를 감지하였다.
⑤ 은섬은 운영이 처한 상황과 운영의 심리를 눈치 채고 있다.

39. <보기>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조선시대에 궁녀는 궁의 주인과 결혼한 여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단 궁녀가 되면 평생을 궁의 주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궁녀가 궁문을 함부로 나가기만 해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궁의 주인이 아닌 다른 이성(異性)과 사랑을 할 경우에는 남녀 모두 참형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궁녀는 이성(異性)과의 사랑 등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마저 포기하고,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작가가 위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① 시대의 모순을 외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물의 내적 고뇌를 제시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②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의 의지를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인간의 비극적 운명과 그것에 체념하여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④ 현실의 억압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물의 행동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⑤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하려는 인물의 노력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40. ㉮에서 '비취'와 '운영'이 나눈 대화의 양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은근히 떠보는 비취의 말에 운영은 둘러대고 있다.
② 비취의 조롱하는 말에 운영은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있다.
③ 진실을 요구하는 비취의 강요에 운영은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
④ 진지하게 걱정하는 비취의 말에 운영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있다.
⑤ 비취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운영은 스스로 짐작하도록 에둘러 말하고 있다.

41. ㉠의 이유를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만간 진사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② 더 이상 서궁 사람들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③ 서궁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대군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④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⑤ 편지로 인한 대군과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2－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므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합리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 이후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의사 결정 모델의 초점은 크게 달라졌다. 이제는 정보는 오히려 풍부하되 정보를 다루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관심의 경제학이다.

(나)

관심의 경제학은 인간의 관심 그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이 기업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 많은 기업이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실린 정보는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노출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밀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이 기업의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 개인의 관심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다)

개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경쟁이 일반화되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지배했던 과거에는 계획부터 생산, 출하, 유통에 이르기까지 정보는 생산을 중심으로 관리되었고, 여기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는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 이후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어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역시 넓어졌다. 따라서 기업은 이제 소비자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점차 재구조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의 핵심은 소비자의 관심을 자신의 상품으로 유인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유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인터넷에서는 소비자가 현실 공간에서의 상거래보다 훨씬 다양한 기업과 상품을 접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 공간에서와는 달리 인터넷상에서는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 기업과 상품에 대한 평판이나 신뢰가 개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전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

'평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서 특정한 선택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은 좋은 평판을 쌓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기업과 제품의 상표 경쟁력(브랜드 파워) 구축에 힘을 쏟는다. '신뢰' 역시 개인의 관심을 한쪽으로 집중시킨다. 기업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대금 결제에 있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신뢰를 얻으려 한다. 개인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로 선택의 범위를 한정시킴으로써 관심 또는 시간이라는 희소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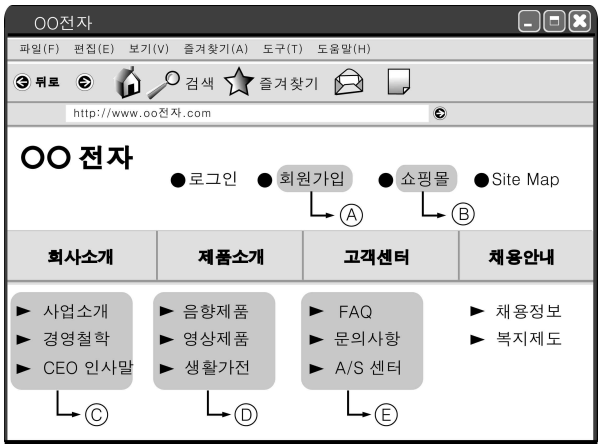
*4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인터넷의 등장 이후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②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개인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③ 인터넷에서는 현실 공간과는 달리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진다.
④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보다는 생산을 중심으로 한 정보가 중시되고 있다.
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면 합리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43.*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관심의 경제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나) : 관심의 경제학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인식을 밝히고 있다.
③ (다) :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④ (라) :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⑤ (마) : 관심의 경제학의 의의를 확인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44.* ㉠을 고려하여 기업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려 한다. Ⓐ～Ⓔ 항목에 대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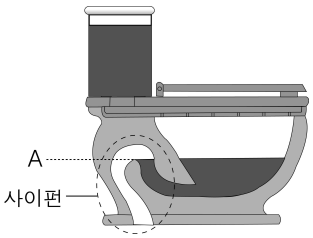



① Ⓐ :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② Ⓑ : 대금 결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③ Ⓒ :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④ Ⓓ : 가격대별로 제품을 배열하여 물품의 재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⑤ Ⓔ : 문의나 불만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45－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와 당당히 하나의 '실(室)'로 자리잡은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에는 악취 때문에 화장실을 집 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화장실은 어떻게 이 악취를 물리치고 집 안의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변기에 차 있는 물' 때문에 가능하였다. 일정한 높이의 물이 항상 차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기의 내부에는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의 관이 있다.

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근본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 물이 3분의 2 정도 담겨 있는 컵이 있다. 컵을 기울이지 않고 이 컵 안의 물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U'자 모양의 굽은 관을 이용한다고 하자. 'U'자 모양의 굽은 관을 뒤집어 관의 한 쪽은 컵 안의 물 속에, 다른 쪽은 컵 바깥에 위치하게 한다. 관의 안쪽에 물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공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컵의 수면에 작용하는 대기압과 관 속의 대기압이 평형을 이루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관 속에 남아 있는 공기를 빨아내어 인위적으로 관 속에 물이 채워지게 하면, 물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관을 따라 컵을 넘어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이는 관 속이 물로 채워지면서 관 속에 작용하던 대기압은 사라지지만 컵의 수면에 작용하는 대기압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압력 차이가 생겨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사이펀의 원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U'자 모양의 굽은 관을 '사이펀'이라 한다.



<변기의 구조>

옆의 그림처럼 변기의 내부에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의 관이 있는 것도 이 사이펀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함이다. 그림에서 물이 A까지 채워져 있을 경우에는 사이펀 안에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용변을 보고 레버를 내리면 물탱크의 마개가 열려 변기 안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면서 늘어난 물의 압력으로 인해 사이펀은 물로 완전히 채워지게 되고, 사이펀 속에 작용하던 대기압이 사라지게 되면서 변기의 물은 용변과 함께 하수구로 빠져나가게 된다.

물탱크에서 많은 양의 물이 변기로 계속 공급된다면 '변기에 차 있는 물'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변기의 구조는, 물이 사이펀의 원리에 의해 모두 빠져 나가 버린 후에는 사이펀을 넘지 못할 정도만큼만 물이 다시 고일 수 있도록 ㉠ 적은 양의 물이 서서히 변기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 물이 모두 빠져나가 버린 후에 변기에 물이 서서히 공급되면 물의 압력이 사이펀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변기에는 A까지만 물이 차 있게 된다. 사이펀을 넘지 못하고 남겨진 물은 고약한 냄새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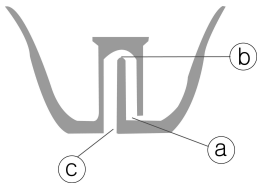
이처럼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변기의 구조 덕분에 화장실은 당당하게 집 안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45.* 위 글이 <보기>와 같은 계획에 따라 쓰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 화제 : 실내 화장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 주요 설명 내용 : ( ㉮ )
○ 자료 탐색이 필요한 항목 : 사이펀의 원리, 변기의 단면도

① 사이펀의 의미와 형태
② 변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
③ 변기의 각 구성 요소별 기능
④ 사이펀과 변기 구조의 차이점
⑤ 변기의 작동에 미치는 대기압의 영향

*4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득 채움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을 가진 '계영배'는 일정 부분, 즉 잔의 일정 높이까지 술을 따를 경우에는 술이 잔에 담겨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술이 아래로 모두 새어버리게 된다.

① ⓐ에서 ⓒ로 이어지는 부분은 '사이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② 잔을 가득 채웠을 때 술이 ⓒ로 빠져나가는 것은 '사이펀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③ ⓑ보다 수면이 높아지면 술은 ⓐ에서 ⓒ로 이어지는 부분을 통해 흘러나간다.
④ 술을 가득 채우면 ⓐ에서 ⓒ로 이어지는 부분의 안쪽의 대기압이 높아지게 된다.
⑤ ⓑ보다 수면이 낮은 경우 ⓐ에서 ⓒ로 이어지는 관 내부에 작용하는 대기압과 잔 안에 작용하는 대기압은 같다.

*47.* ㉠의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물이 서서히 공급되어야만 변기의 물이 완전히 빠져 나가기 때문에
② 물이 서서히 공급되지 않으면 변기의 물이 물탱크로 역류하기 때문에
③ 물이 서서히 공급되어야만 사이펀 안이 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④ 공급되는 물의 압력이 약해지지 않으면 관을 통해 계속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⑤ 물이 서서히 공급되어야만 변기의 수면에 작용하고 있던 대기압이 사라지기 때문에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물을 보고 있다.

물은 아름답게 흘러간다.

㉠흙 속에서 스며 나와 흙 위에 흐르는 물, 그러나 흙물이 아니요 정(淨)한 유리그릇에 담긴 듯 진공 같은 물, 그런 물이 풀잎을 스치며 조각돌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푸른 하늘 아래에 즐겁게 노래하며 흘러가고 있다.

물은 아름답다. 흐르는 모양, 흐르는 소리도 아름답거니와 생각하면, 이의 맑은 덕, 남의 더러움을 씻어는 줄지언정, 남을 더럽힐 줄 모르는 어진 덕이 이에게 있는 것이다. 이를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을 맑힐 수 있고 이를 사귈 때 얼마나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물은 보면 즐겁기도 하다. 이에겐 언제든지 커다란 즐거움이 있다. 여울을 만나 노래할 수 있는 것만 이의 즐거움은 아니다. 산과 산으로 가로막되 덤비는 일 없이 고요한 그대로 고이고 고이어 나중 날 넘쳐 흘러가는 그 유유무언(悠悠無言)*의 낙관(樂觀).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독에 퍼 넣으면 독 속에서, 땅 속 좁은 철관에 몰아넣으면 몰아넣은 그대로 능인자안(能忍自安)*한다.

물은 성(聖)스럽다. 무심히 흐르되 어별(魚鼈)*이 이의 품속에 살고, 논, 밭, 과수원이 이 무심한 이로 인해 윤택하다.

㉡물의 덕을 힘입지 않은 생물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물, 기쁜 물, 고마운 물, ㉢지자(智者) 노자(老子)는 일찍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였다.

－ 이태준, 「물」 －

* 유유무언(悠悠無言) : 한가롭고 여유로운 가운데 말이 없음
* 능인자안(能忍自安) : 잘 참아 내어 스스로 편안함
* 어별(魚鼈) : 물고기와 자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상선약수(上善若水) :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나)

농부는 하늘로부터 모를 심고 수확하는 거룩한 임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하늘과 땅에 초록빛 기도를 바친다. 논에 물을 넣고 날을 받아 모심기를 한다. 한 줄씩 맞춰가며 들판을 초록으로 가득 채워놓는다. 모심기를 끝낸 논을 바라보는 순간, 농부는 자신도 모르게 한 포기 모가 됨을 느끼리라. 이 모들은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변하고 그 빛깔을 거두는 기쁨을 가지게 되리라. 들판에 나가면 하늘의 말과 벼들의 숨소리가 들린다. 벼와 숨을 맞추지 않은 사람은 진실한 농부라 할 수 없다. 벼들은 농부들의 발걸음 소릴 듣고 자란다. 농부들은 벼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든다. 벼야말로 인류를 먹여 살리는 더없이 고마운 곡물－.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주식량으로 삼는 농작물이 아닌가.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식량이 되고 목숨 줄을 잇게 해준다. 생명을 주고 기른 어머니이자, 고향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늘이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 이 풀을 주신 게 아닐까.

여름의 들판은 벼들이 커 가는 숨소리로 가득 찬다. 농부들은 논에 들어가 피를 뽑아낸다. 태풍에 넘어진 벼포기들을 일으켜 세우고 비가 온 뒤엔 물이 잘 빠지게 배수로를 만들어 준다.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벼들은 무더기로 쓰러진다. 벼들은 다시 일어난다. 어울려서 힘을 내어 일어선다. 목이 타들어가고 물에 잠겨도 묵묵히 견뎌낸다. 멸구에 시달리면서 밤을 지새운다. ㉣7, 8월에 꽃술만 삐쭘 드러내는 연한 노란색의 벼꽃은 햇빛에 반짝이는 귀여운 귀걸이 같다고나 할까.

농부는 가을 들판에서 익어가는 벼들을 보면서 흙, 물, 태양의 온기를 느끼고 벼의 은혜를 생각한다. 인류의 젖이 되고 밥이 되는 벼! 떡이 되고 술이 되는 벼! 흥과 신바람이 되는 벼! 노래와 춤이 되는 벼! 풍요와 평화가 되는 벼! 가을 들판의 벼들 앞에선 누구나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하리라. 농부에게도 고개 숙이고 감사해야 한다. 벼들은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다. 말없이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풍요와 안식을 안겨준다. 때가 되면 벼들은 들판을 비우고 사라진다. 벼는 생명 그 자체이며 생명을 키우는 위대한 모성을 지녔다. 아무리 찬미한다고 한들 어찌 그 은혜에 미칠 수 있으랴. ㉤평생 동안 밥을 먹고 지내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벼의 삶과 일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미숙함을 느낀다. 아, ㉮들판을 물들이는 벼의 황금빛으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순 없을까.

－ 정목일, 「벼」 －

48.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찰한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② 덧없는 인생으로 인한 허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③ 소중히 여기는 대상의 상실로 인한 고통이 드러나 있다.
④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각박한 현실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⑤ 소재의 긍정적 속성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49. ㉮를 고려할 때, (나)의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삶
② 어떠한 시련도 기꺼이 견디어 내는 삶
③ 매사에 감사하며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삶
④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⑤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삶

50.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대비를 통해 물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구나.
② ㉡ : 설의적 표현으로 물이 생물에 미치는 혜택을 강조했어.
③ ㉢ : 노자의 말을 빌려 지금까지 성찰한 내용을 마무리했어.
④ ㉣ : 연약하면서도 정열적인 '벼꽃'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구나.
⑤ ㉤ : '벼'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을 반성하고 있어.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